주가	환율	금리
+13.20	+0.10	+0.01
1,374.30 (코스피지수)	956.40원 (원/달러)	4.72%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3.39	(+7.17)
다우(15일)	11,560.77	(+33.38)
나스닥(15일)	2,235.59	(+6.86)
닛케이	'경로의 날' 휴장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92엔	(+1.43)
유로 달러 환율	1.2654달러	(-0.60)
3년만기 회사채	5.05%	(+0.01)
콜금리	4.47%	(보합)

光銀 총 대출 8조원 돌파

광주은행의 총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를 기록했다.

1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총대출 7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7개월만인 15일 총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 8조38억원을 기록했다.

총대출 8조원 달성은 애초 예정했던 11월보다 2개월여 앞당긴 것으로 은행측은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8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은행은 2003년 5조원 시대를 연뒤 2004년 5조5천억원, 2005년 6조7천억원의 총대출을 기록했다.

지난 68년 지역 상공인들이 세운 자본금 1천704억원의 광주은행은 부실경영으로 존폐위기에 몰려 2000년 4천41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된 이후 우량은행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마일리지로 中 여행 가세요"

아시아나항공 '클럽 회원' 대상 할인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마일리지 항공권과 여행사의 중국 여행상품을 연계하는 제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은 기존의 중국노선 공제 마일리지인 3만 마일에서 1만 마일이 할인된 2만 마일에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다.

마일리지 상품에는 베이징, 황산, 상하이 여행상품과 옌타이, 웨이하이, 다롄 골프상품 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과 여행경비 등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flyasiana.com)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20여일 앞둔 '추석대목' 선물 양극화

저가 '알뜰' vs 고가 '명품'

▲식용류 세트 33,000원

▲욕실용품 36,500원

▲복분자 세트 38,000원

▲참치 세트 32,800원

소비 양극화현상을 반영하듯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올 추석 선물세트도 '고급형'과 '실속형'상품으로 이원화되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백화점들에 따르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양주와 수제 녹차, 황제굴비 등 명품 선물세트가 있는가 하면 서민층을 겨냥한 돌김, 멸치세트 등 실속형 상품도 크게 늘었다.

예년과 달리 백화점마다 다른 백화점에는 없는 단독 선물세트와 소포장 상품을 대폭 강화해 고객 붙잡기에 나선 것도 올 추석 선물의 특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반적인 상품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선물세트를 크게 테마별, 단독, 명인세트로 구분해 다양하게 준비했다.

우선 '명품 수', '웰빙 청', '지역명품 특' 등 5개 테마로 나눠 100여 품목을 마련했고 계약농장 및 지정 목장 등을 통해 단독으로 확보한 100여 품목을 선보인다.

특히 대한민국 녹차 명인 1호로 지정된 박수근씨의 수제녹차 입동(350만원)과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인 서한규씨가 직접 만든 채상에 담은 명품한과 세트 '죽향예인(200만원)'등 고가의 명인세트 50여 품목을 마련했다.

명품세트에는 노무현대통령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만찬와인으로 유명한 '샤또 그뤼오 라로즈 85년산'과 1병(750㎖)에 600만원짜리 꼬냑도 포함돼 있다.

반면 1~3만원대의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 실속 및 중저가 선물세트를 예년보다 30~40% 늘린 200여 품목을 준비해 대형마트로 분산될 고객 붙들기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유기농·친환경·무항생제·무농약 상품들로 '그린스타'라는 이름의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그린스타로는 우전차 명인 김돈곤씨가 지리산기슭에서 직접 재배한 녹차와 일본 낫또 전문가가 만든 유기농 낫또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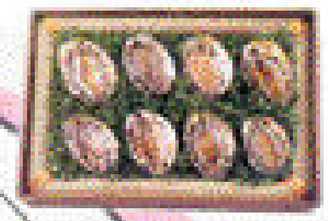
또 신세계바이어가 산지부터 검사까지 직접 챙긴 '5 스타' 선물세트를 한우·신고 등 기존 7개 품목에서 자연송이 등 5개를 추가해 12개 품목으로 늘렸고 프랑스 유명 식품브랜드인 '꼬르동 블루' 등 신세계만의 상품도 강화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200만원짜리 굴비세트를 비롯해 명품한우(65만원) 등 8개 품목을 최상위 고객을 타깃으로 내놓았고 '호주산 유기농 청초우 세트'와 자연산 미역으로 만든 '품질인증 대장각' 등 91개 단독상품을 선보인다.

품목별 주력상품군 가격은 갈비와 정육의 경우 15~25만원대, 청과는 5~15만원대, 옥돔은 7~15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소비 양극화를 반영해 고급형과 실속형 상품으로 이원화했다"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물세트보다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밀착형 마케팅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활 전복 세트 500,000원

▲한우 세트 550,000원

▲자염 옛날굴비 세트 1,000,000원

▲정관장 뿌리삼 1,290,000원

포스코 광양제철, 협력사와 상생

삼우기계 등 12개사에 성과 보상금 13억 지급

포스코는 공급사와 성과를 공유하는 '베네핏셰어링 (Benefit Sharing)'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 16개 과제를 완료한 12개사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생의 협력을 통한 신나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포항과 광양에서 공급사 대표와 포스코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하반기 베네핏셰어링 킥 오프' 행사를 갖고, 올 상반기 성과가 확인된 삼우기계, 달성, 우진 등 12개사 16개 과제에 대해 총 13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4개 공급사에서 응모한 96개 과제 가운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23개사 26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됐다.

특히 광양제철소 제선부와 삼우기계가 공동으로 수행한 '미분탄 취입용 랜스 개선'과제는 용광로의 연료인 미분탄의 사용수명을 종전 대비 4배 이상 향상시킨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04년 공급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초과달성분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베네핏셰어링 제도를 처음 실시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된 과제는 총 90개사 146개 과제. 이 가운데 성과보상을 완료한 과제는 39개이며, 성과측정중인 과제가 17개로 이는 성과가 확인되는 대로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베네핏셰어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포스코 고유의 성과공유 모델로 정착시키고자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단가계약된 품목에 대해 계약공급사가 아닌 타 공급사에서도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공급사만이 아니라 포스코도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주공, 진월지구 아파트 분양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 남구 진월택지개발지구내 '휴먼시아' 아파트 576가구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급평형은 30평형 182가구, 33평형 394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중간층 기준으로 30평형 1억4천920만원, 33평형 1억6천860만원 등이다.

분양 신청접수는 오는 25, 26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주공 주택문화관에서 청약저축 1, 2, 3순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융민원 Q&A

연대보증

Q:보증선지 1년 지났는데 은행 갑자기 빚 독촉?

A:대출 3년내 자동연장…통지없어도 책임

Q : 직장인 김모씨는 친구 이씨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게 됐다. 당시 1년만 보증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후 은행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어 이씨가 성실히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출금이 연체됐다며 은행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이의제기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 : 김씨의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서는 보증을 설 당시 김씨에게 대출금액, 만기일, 그리고 대출 만기일에 연체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자동 연장될 수 있다는 기한연장 조건 등을 설명했다.

은행측은 또한 김씨가 대출 관련 서류에도 내용을 잘 읽었다고 자필 서명을 했으므로 김씨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씨의 사례처럼 대출의 만기일에 보증인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연장 되는 대출의 경우 은행의 만기일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최초 보증을 설 때 주의해야 한다. 또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는 연대보증한 이상 보증인의 동의 없이 기한연장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 보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 국번없이 1332〉